

3.8국제부녀절이 오면 우리 녀성들은 누구나 꽃속에 휩싸인다.

녀성들에게 꽃송이, 꽃뭉음을 안겨주며 건네는 인사말들도 뜻이 깊다.

《부녀절을 축하합니다.》, 《봄날의 꽃처럼 항상 아름답길 바랍니다.》

정말 3월의 봄날같이 밝고 환희로운 우리 녀성들의 모습이다.

게절이 좋아서 우리 녀성들의 삶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것은 아니다.

1910년 단마르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녀성대회에서 3월 8일을 전세계근로녀성들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하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녀성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위한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나왔다. 그러나 너무도 굴곡많은 세파에 부대끼며 피눈물로 인생년륜을 새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녀성들이었고 세계의 녀성들이었다.

사회적악자로서 당해야 했던 것은 천대와 멸시, 남존녀비의 봉건적질곡속에 열두자락치마폭을 눈물로 적시면서도 그것을 숙명으로 간주하며 살아야 했던 이 나라 녀성들의 설움같은 모습은 지나온 력사의 갈피에 아물수 없는 상처처럼 새겨져있다.

나라없던 민족수난의 시기 녀인들의 운명은 더욱 비참했다.

외세의 악정과 봉건의 질곡속에 2중3중의 고통을 당하며 물밑에서 서있는 《봉선화》와 같은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에 담아 구슬퍼 불러야 했다.

그렇듯 수난했던 우리 녀성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재생의 새봄을 안아오시

3월의 봄날같이

여 비로소 극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보시고 그들을 내세워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녀성중시정치를 받드시어 그들이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 그옥한 향기를 풍기도록 하여주시었다.

녀성들이 생기와 활력에 넘쳐야 조국이 힘차게 전진하며 어머니들의 세기적전원이 완전히 실현될 때 강성국가가 일떠선다고 하시며 녀성들을 나라와 민족의 꽃으로, 시대와 혁명의 힘있는 역량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녀성중시의 사상과 령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제101(2012)년 11월 16일을 첫 어머니날로 제정해주도록 하시고 이날을 계기로 전국각지의 어머니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성대한 대회도 마련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예로부터 어머니사랑을 통가할 사랑은 세상에 없다고들 하여왔지만 어머니들의 천만고를 다 헤아려주시고 그들을 행복의 단상에 세워주시는 원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자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그이의 사랑은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창전거리살림집에 입사한 녀성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101(2012)년 9월

합친것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었다.

자식 하나 키우며 드는 품이 좁쌀 한말을 실에 꿰는 품에 비겨 오만공수라고 하였는데 온 나라 녀성들을 비롯한 인민들을 보살펴주시는 원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인것이다.

나라에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 축물들을 일떠세울 구상을 하실 때에도 녀성들을 전문치료하는 훌륭한 병원부터 건설하도록 배려해주고 자식을 병없이 키우 고싶어하는 어머니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려 일류급의 아동병원

을 녀성들과 아이들에게 통채로 안겨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건설중에 있는 평양산원 유선 중앙연구소를 찾으셨던 그날에도 원수님께서는 연구소를 꾸려놓 는데 만족해하지 말고 녀성들이 정상적으로 찾아와 검진을 받게

함으로써 유선증과 유선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한 나라의 령도자가 녀성들의 건강관리와 검진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마음쓰신 실례를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던가.

녀성들을 존중하고 내세워 주는 이런 고마운 정치하에서 녀성들이 권리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재능과 지혜도 활짝 꽃피우고있다.

우주를 날으는 과학기술실용유성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의 성공에도 녀성과 학자들의 땀이 스며들어있으며 세계적인 패권을 잡은 체육강자들, 그들을 키워낸 체육감독들의 대렬에도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는 공화국녀성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제경기들에서 녀성을 펼친 녀자축구선수리금숙을 감회깊이 추억해주시며 리금숙과 같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평범한 녀성체육인을 잊지 않으시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목이 매여 리금숙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라고 자기의 심중의 고백을 터치었다.

창전거리에 새로 입사하여 신선살림을 펼친 한 녀성로동자의 집을 찾아 친부모보다 먼저 살림살이도구와 선물을 안겨주시며

따뜻한 축복을 안겨주신분, 안해와 두 딸이 모두 교단에 서있는 교육자가정에 들리시어서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묵묵히 랑심을 바쳐가는 애국자라고 값높이 불러주신분이 바로 이 나라 모든 녀성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이 《그이 없인 못살아》라고 노래 부르며 따르고 받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사회주의의 비옥한 토양우에서 아름다운 삶을 향유하며 녀성들과 똑같이 조국의 강성변명을 위해 헌신하는 조선녀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것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녀성들의 불행한 수난사가 지속되고있다.

전쟁과 내란에 시달리는 녀성들, 현대판 성노예가 되어 녀성의 존엄과 권리를 강그리 유린당한 녀성들이 구원을 부르짖고 있다.

지난 2일 남조선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하여 하루에만도 3건의 동탄자살사건이 일어나 세상을 경악케 하였다.

꽃으로 피고싶어도 품어주는 토양이 없고 빛과 열을 주는 파사로운 빛발이 없어 지구상 곳곳에서 계속 되고있는 녀성수난의 력사는 공화국의 품에서 누리는 우리 녀성들의 행복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녀성존중, 녀성중시의 정치가 펼쳐지는 곳에 녀성들의 복된 삶도 있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민족의 태양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시어 우리 녀성들의 운명과 미래는 3월의 봄날같이 그토록 밝고 환희로운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철

인민주권을 반석으로 다지는 길에서

첫 선거의 나날에

주제35(1946)년 10월이었다. 민주선거를 앞두고 각지 선거구들에서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후보자추천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안남도 강동군 삼등면(당시)을 찾으시었다.

첫 민주선거에 참가하는 그곳 인민들앞에서 수령님께서는 높은 정치적열성을 가지고 선거에 적극 참가하여 찬성투표하여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해야 한다 는 내용의 연설을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북조선에 창설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게 될것이며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실시하는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선거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라고 하시었다. 이어 각계층 인민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수령님께서는 자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며 힘껏 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활은 그만큼 좋아질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외세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인민들이 자기의 대표를 선거하여 세우는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지며 전체 인민이 다같이 잘사는 새 조선을 건설할때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삼등면사람들의 선거열의를 크게 북돋아주었다.

대의원 후보자에게 바치신 한표

주제87(1998)년 7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하는 한 인민군부대의 선거장을 찾으시었다. 선거장에 들어서서어 군인대의원후보자에게 투표하신 그이께서는 부대지휘관들과 대의원후보자를 만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지난 시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때에는 수령님을 모시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가서 로동자, 농민대의원후보자에게 투표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부대에 와서 군인대의원후보자에게 투표한것은 처음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군인대의원후보자에게 투표한것은 주제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이며 혁명의 기동인 인민군대를 들어치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의 표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의원후보자에게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당부하시었다.

군력강화로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든든히 보위하고 민족자주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맥박치는 고귀한 가르치심이었다.

본사기자

잡들줄 모르는 파도와도 같이 여기 1월8일수산사업소 건설장은 연방에도 창조와 혁신의 열풍으로 세차게 뿜어번진다.

얼마전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중량부채들과 팔조공사가 끝난 건물들을 보시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다고, 차디찬 파도와 싸우며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이것이 바로 단숨에의 정신력이 낳은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로동당력사는 변혁과 창조의 시간으로 수놓아가는 군인건설자들, 이들의 심장속에 끓어넘치며 기적을 창조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지난 1월 6일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물동시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자신께서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

1월8일수산사업소는 길이 전하리라

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때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던것이 다. 바로 이렇게 되어 여기에는 인민군대가 책임지고 아이들과 로인들을 위해 건설하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부모없는 아이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육친적 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그때로부터 한달을 가까이 하는 지난 2월 3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몸소 찾으시었다.

이곳의 보육 및 교양조건

과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원수님께서는 육아원과 애육원의 아이들이 하느같이 불이 오도록모든것을 하시면서 올해부터 그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300g씩 먹이시겠다고, 우리 나라에는 아이들이 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강계에 대해 교양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때들은 결코 부모없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천

세벽에도 건설장으로 달려나 오군 했다고 이곳 지휘관들도 군인건설자들 누구나 이야기한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건설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했다고, 차디찬 파도와 싸우며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이것이 바로 단숨에의 정신력이 낳은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그러

이면서 건설장을 바라보니 벌써부터 현대적으로 일떠선 수산사업소를 보는것만 같고 물고기메가 기다리는것만 같다고 호랑하게 웃으시며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해 우리가 하고있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인민들과 아이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였으면 아직은 흠뻑줄을 몰랐다고,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매일 물고기의 수량을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생각하면 눈을 감아도 잠을 들 수가 없어 한밤중에도 이른

지금도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어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고 있다.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든든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

바로 이런 크나큰 사랑과 은정으로 온 나라 인민을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 그늘까지 말끔히 가셔주는 태양의 빛발이 있어 이 나라의 집집마다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고 강산은 언제나 밝고 환희에 넘쳐있는것 아닌가.

이제 세상사람들은 새롭게 일떠선 1월8일수산사업소와 더불어 얼마나 전설같은 사랑이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가를 뜨겁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1월8일수산사업소는 길이 전하리라. 인민에 대한 가장 헌신적이며 마음을 가장 넓은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세의 위인성을.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인민의 무한한 행복과 감격을.

본사기자 김강철

출중한 위인을 모셔 민족의 앞날은 밝다

조국을 찾는 내 마음은 항상 천정집을 찾는 딸자식의 심정이다. 이제까지 수십차례의 조국방문을 하지만 조국에만 오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분도 좋아져 한 10년은 젊어지는것만 같다. 이번에는 평양성절을 맞으며 또다

시 조국을 방문하였다. 조국방문은 나에게서 인생체합의 좋은 계기로, 많은것을 배우는 기회로 되곤 한다.

나는 조국방문하날에 내가 체험한 이야기들과 하고싶었던 말들을 미흡하게나마 글로 적어본다.

대지

펼칠수 있던 말인가.

문수물놀이장에서 시작된 나의 놀라움은 미림승마구락부와 육류아동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환경은 도심에 맞게, 설비는최신식으로 갖추어진 아동병원에 갔을 때였다. 병원에 들어서서 순간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마치 아동미술박물관에 들어선듯 한 느낌이였다. 놀라움과 감탄을 연발하는 우리에게 병원의 한 일군은 병원내부에만도 아동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에서 나오는 미술작품 170여점이 부각장식되었다고 하면서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미술대학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 오랜 화가들보다 생신하고 기발한 착상이 나올수 있다고 하시며 그들이 위주자 되어 아동병원에

그림장식을 하도록 할때 대해 조치까지 하였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었다. 그는 계속하여 이곳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은 병력서에만 이름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병원에 꾸려진 교실들의 출석부에도 자기 이름들을 올리게 된다는것이였다. 말하자면 병원에서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다는것이였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아름다운 나라

내 조국은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러나 조국의 아름다움은 결코 산천경계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지난해 9월이었다. 공화국 창건 65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돌아가던 나는 비행기 안에서 관광을 마치고 귀국하는 로씨야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로씨야에 사는 해외조선공민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 조국은 정말 좋은 나라이다. 경지도 좋고 사람들도 좋다. 이번에 금강

있나?

물론 이 물음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대답을 이미 오래전에 조국방문을 하던 그때부터 벌써 찾았기때문이다. 그러나 올처럼마다 새라새로운 조국의 현실을 떠올려 매마다 어쩔수 없이 령방 뛰어나오곤 하는 물음이었다. 정말이지 인민에 대한 무한한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골같은 현실이다.

조국의 힘, 밝은 미래

산에 가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더우기 잇을수 없는것은 조선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동방배의 지국이래더니 당신네 나라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선량한 미덕의 인간들이었다. 서방의 선전과는 너무나 판이한 현실이었다. 모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접 와서 제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의 진정어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훌륭한 자연경치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성이 아름다울 때 빛을 낼수 있다고.

2년 남짓한 기간에 조국에서 벌어진 사변들, 눈부신 전변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온 나라를 수림화하려고

봄눈향이 누리를 감싸고있다. 산자락이 다 들가의 양치엔 파릇한 새싹이 움트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이른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요즘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너나없이 삼삼오오 나무심는 모양이다.

산지는 물론 거리나 마을, 공장이나 기관, 농촌, 교정할것없이 어디가나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식수에 국성이다.

나무심기는 나라의 부강변명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생활리전을 마련해주며 후대들에게 풍요하고 아름다운 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국토관리사업의 하나이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잘하여 가까운 앞날에 온 나라를 수림화하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었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는 부대주변에 더 많은 나

물을 심고 가꾸어 주둔지역을 유원지화, 공원화, 휴양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전선시찰의 길에서 지성을 들어 한살한살 흙을 쓰시며 식수를 하신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나무술 무성할 아름다움은 조국강산을 그리시며 강성변명의 패일을 위해 나무심기로 몸을 맞으시는 절세의 애국자의 모습을 보았다.

푸른숲 수려한 이 강산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께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조국애와 끝없는 헌신, 귀중한 가르치심은 사람들을 봄날의 식수에로 힘차게 부르고 있다. 애국충정으로 마음 불타는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구상과 뜻을 따라 조국강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로부터 봄을 맞고있는것이다.

김광진